

## 루돌프 슈타이너 인지학의 교육철학적 의미와 한계<sup>1)</sup>

이향만(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

### <요 약>

---

슈타이너의 인지학이 갖는 교육철학적 의미는 무엇보다 인간 본성의 통합적인 이해이다. 인간의 본성인 감성과 이성과 의지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였다는 점이다. 슈타이너는 통합 이론 체계에 기반하여 교육론을 완성하였으며 발도르프 학교를 통해 교육 효과를 실증하였다. 그러나 슈타이너 교육론을 올바르게 이해하기위해선 슈타이너가 제기하는 인성론이 갖고 있는 보편성과 교육론의 문화적 배경과 한계를 인식할 수 있는 비판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의 전통적인 교육관으로부터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내는 관심과 해석능력도 요구된다. 이점에서 슈타이너의 인간 본성론과 교육론은 고찰할 가치가 있다.

주제어: 인지학, 본성, 사고, 감성, 감정, 의지, 표상, 형상, 오이리트미

---

## I. 들어가는 글

우리는 정규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대사회의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대안교육에 대한 관심이 절실한 시기를 살고 있다. 발도르프 교육의 기초를 놓고, 유기 농업과 인지학적 의학 및 건축예술을 새로운 차원으로 올려놓은 슈타이너의 교육 사상에 대한 관심은 이러한 시기에 우리의 교육 현장에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특별히 유아교육과 관련하여 그의 인지학적 인간학은 슈타이너가 인간본성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의 교육철학을 체계화하였는지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전통적인 교육철학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내적인 심성 발달과 도덕과 영혼의 성장을 위한 슈타이너의 교육철학은 정통성을 벗어난 새로운 이론이라 할 수 있다. 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슈타이너는 철저히 서구 교육전통을 계승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의 이론은 그리스도교 신비주의와 헤르메티즘<sup>2)</sup>의 비의 그리고 괴테의 예술과 과학정신을 따르면서

---

1) 본 논문은 2012. 6. 2에 개최된 한국발도르프영유아교육학회 제 9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임.

2) 15세기에 『헤르메스 대전』이 라틴어로 번역되었는데 서구인들은 이집트의 현자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의 복음을 태초 지혜의 말씀으로 여기며 대홍수 이전의 고대인들을 신에 가까운 존재로 떠받들게 되었다. 훗날 17세기의 고전학자 아이작 카소봉(Isaac Casaubon)은 원문의 용어·형식·내용으로 볼 때

도 칸트의 이성주의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통합적인 사유 안에서 슈타이너는 자신의 인지학적 입장에 비추어 교육학을 해석하고 체계화시켰다.

슈타이너의 교육이론은 생존시기부터 줄곧 인종주의자라는 비판과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했다는 상반된 평가를 받아왔다. 지난 2011년 슈타이너 탄생 150주년을 지내며 비판적 입장을 더욱 분명하게 부각시킨 서적과 영화가 소개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비판적 입장은 슈타이너의 이론을 비판없이 수용하는 우리의 교육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발도르프 슐레의 교사였으며 그래픽 아티스트인 안드레아스 리히테(Andreas Lichte)는 <히틀러, 슈타이너, 무솔리니-인지학과 파시즘, 어제와 오늘>이라는 인지학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통해 슈타이너에 대해서 편향된 찬양을 비판하고 올바른 이해를 촉구하였다.<sup>3)</sup> 반면에 기존의 휴머니즘에 종언을 고하고, 건유주의(犬儒主義)와 유진공학의 결합으로 ‘새로운 인간’의 탄생을 기도하는 포스트휴머니즘의 주창자인 페터 슬로터다이크(Peter Sloterdijk, 1947~)는 슈타이너를 매우 중요한 철학자로 평가하고 있다. 그는 “슈타이너는 세상에서 인간의 공존을 가능하게 삶의 방식을 개발하기 위한 메시지의 이상적인 전달자”라고 하였다.<sup>4)</sup> 그러나 리히테는 슈타이너가 백인 우월 인종주의자이며 인종 차별에 대한 언급을 하였음을 제시하면서 슬로터다이크의 입장에 서있는 토마스 로이슬 밍크(Thomas Loisl Mink)가 “마지막 예언자인 루돌프 슈타이너는 가장 실천적인 독일 관념론자”라고 한 언급을 무비판적인 추종이라고 단정 지었다. 또한 리히테는 비트라 디자인 박물관의 전시 주제인 <일상생활의 연금술사인 루돌프 슈타이너>에 대해 ‘루치퍼(Lucifer)와 아리만(Ahriman) 사이에 인류의 대표’로서 ‘매우 인상적이고 인지학 텍스트 자체가 예술작품’이라고 한 밍크의 견해에 대해 비엔나대학교 교육학교수 스테판 호프만(Prof. Dr. Stefan T. Hopmann)의 말을 인용하여 비판하고 있다: “학교철학 안에서 말하는 자유와 창의성의 발견자는 민주주의자나 미학자로 나타나기 보다는 오히려 권위주의적 사고로 가득 차 있고, 인종우월주의의 자연주의적인 왜곡된 미학을 좋아하는 것은 아닌지?”<sup>5)</sup>

이밖에 그의 생애에 대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다른 비판적 입장을 밝힌 인지학에 대한 저명한 비평가이며 가톨릭 신학자이자 역사학자인 헬무트 찬더(Zanders)의 치밀한 비평이 있

《헤르메스 대전》은 기원후 2~3 세기 이후의 작품이라고 보았으며 그 내용은 인간은 신의 세계를 이루는 중요한 일원이며, 신이 빛을 통해 그의 작용력을 드러내듯이 우주의 신비를 파악한 인간은 진정한 지식을 통해 이 세계의 운행을 감지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젤로, 『진기한나라 중국』, 이항만 외 역, 나남, 2009, 494쪽; <http://persival.egloos.com/1874262> (2012.05.10)

3) <http://www.ruhrbarone.de/hitler-steiner-mussolini-anthroposophie-und-faschismus-gestern-und-heute/>(2012.05.10)

4) <http://www.badische-zeitung.de/kultur-sonstige/ein-engel-der-versucht-mensch-zu-sein-50647248.html>(2012.05.10)

5) <http://www.schiebener.net/wordpress/?p=14183>(2012.05.10)

다.<sup>6)</sup> 이러한 비판적 입장은 독일 만해도 2010년을 기준으로 220곳의 발도르프 학교와 527곳에 유치원 등 수많은 특수 교육 및 사회 치료 기관이 있듯이 전 세계에 확산되고, 연구해온 발도르프 교육의 장점만을 생각해온 우리에게 상당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이러한 이전에 대해 발도르프 교육자들의 반론 또한 적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점에서 돌이켜 보아야 할 것은 우리 유아교육현장이 발도르프 교육에 대해 무비판적인 수용에 몰두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어느 교육 이론도 완전한 이론이란 없다. 또한 과학기술 문명의 발달로 인간의 의식에 대한 과학적 관점이 심화된 현재 100년이 지난 이론 체계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교육철학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슈타이너의 교육관을 반성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유용하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더더욱 교육철학의 부재로 교육 현장에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당위적 과제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우선 선행되어야 할 비판적 관점은 슈타이너의 인간관이다. 인간이해는 교육의 대상을 이해하는 교육철학의 근간이 되는 일이다. 슈타이너 스스로 인간에 대한 철학적 이해로부터 그의 교육철학과 구체적인 교육방법을 체계화하여 발도르프 학교의 창설 취지로 삼아 강연하였으며, 이 내용은 『인간에 대한 보편적 앎』이라는 저작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었다. 이 저작은 슈타이너 인간학을 개괄하는 중요한 저작으로 그의 교육학적 인간학을 이해하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이다. 실로 이 저작을 대하면 철학자 슬로터다이크가 말하듯 “슈타이너는 수직성을 새로 정의했고 인간의 개별성을 위로 연계하게 하였으며 다다이스트 후고 벨의 묘사처럼 그는 안테나인간이어서 무엇이든 언제나 수용하고자 하였다”<sup>7)</sup>는 해석은 이해가 간다. 실로 슈타이너의 동서의 종교와 철학을 넘나드는 듯 한 해박하고 복합적인 이론 체계는 독자들이 생 각할 여유를 갖지 못하고 텍스트에 몰입하여 끝내 부족한 지식으로 스스로 비판적 관점을 포기 하게 하는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타이너의 이론이 현대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교육자들의 철저한 분석이 필요한 실정이다. 발도르프 교육이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의 첫 단계인 유아교육에 상당히 집중되어있기에 이 이론 체계를 반성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학문적인 엄밀함을 추구하는 철학적 입장에서 슈타이너의 인간학을 고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슈타이너 교육의 효과를 입증한 여러 사례들은 더더욱 슈타이너 교육학에 대한 접근을 더욱 조심스럽게 한다. 그러나 분명한 문제는 현재의 결과가 좋다고 과정자체를 단순히 옹호하거나 현재의 결과가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낙관할 수 없으며, 현재의 결과가 교육방법론에 따른 것인지 교육자의 인격에 따른 것인지 판단하기 또한 어려우며,

6) <http://www.spektrum.de/artikel/1120794&z=798888>(2012.05.10)

7) <http://www.schiebener.net/wordpress/?p=14183>(2012.05.10)

아동들에게서 장기적인 교육효과를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슈타이너 이론의 일면을 살펴보는 것은 슈타이너뿐만이 아니라 교육철학자의 이론에 대해서 요구되는 교육자의 반성적 성찰이라 할 수 있다. 이 논고에서는 인간 본성론과 교육 인성론에 대한 이해로 국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II. 슈타이너의 인간 본성론

### 1. 영혼론

슈타이너는 효율성만을 추구해온 근대의 도구적 이성의 폐단을 비판하는 점에서 다른 근대철학자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슈타이너는 이것이 정신세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부족에서 나타난 결과로 진단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잘못된 교육관의 개선을 제시하였다. 죽음을 주목하고 출생을 망각하는 교육현실에 새로운 전회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이론의 전제는 슈타이너의 윤회관이다. 슈타이너는 윤회에 기반하여 더 높은 차원의 존재가 출생이전에 이룬 것을 계속해서 실행해야 할 바가 인간 존재의 내부에 있다는 의식이 교육과 수업제도에 올바른 정서를 부여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sup>8)</sup> 일반적으로 슈타이너의 윤회설을 불교의 영향으로 보고 있지만 윤회설은 인도 유럽문화의 공통적인 영혼관이다. 그러나 불교와 플라톤의 윤회관은 그 지향점을 달리하고 있다. 불교의 윤회관은 깨달음의 지속성과 자비 수행의 근거로 작용한다. 자비가 깨달음의 바탕이 될 때 윤회는 실천적으로 모든 사람의 상호적인 인연성을 설명하는 데 더 적합하다. 플라톤은 『국가론』 10권에서 호메로스와 오르페우스의 영혼론을 결합한 영혼의 윤회를 보여주고 있다. 플라톤에게 영혼관은 자아의식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플라톤이 의존하는 그리스 영혼관의 전통은 오르페우스 신화와 관련이 있다. 영혼과 관련지어 무엇보다 자아에 관심을 보인 철학자들은 B.C. 5-6세기에 활동한 피타고라스와 엠페도클레스이다. 이 두 철학자의 사상은 오르페우스교의 신비주의와 결합되어 있다.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오르페우스교는 영혼 불멸과 영혼 윤회를 믿었다. 정결한 혼은 영원히 신들과 함께 기거하며 불결한 혼은 신들 곁에 머물면서 인간이나 짐승 또는 더 비천한 존재로 환생할 기회를 기다린다. 영혼은 윤회과정을 통하여 정화되거나 더럽혀지고 더욱 불결해진다. 그러나 윤회하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영혼은 자아를 나타내고 있다.<sup>9)</sup>

8) 루돌프 슈타이너, 『인간에 대한 보편적인 앎』, 최혜경 옮김, 밝은누리, 2007, 35쪽

9) 레이먼드 마틴, 존 베러시, 『영혼과 자아의 성장과 몰락』, 마리 오 옮김, 영림카디널, 2008, 17쪽 참조.

오르페우스교에는 영혼이 정관(靜觀, theoria)의 상태에 이르는 일련의 제의적 행위들이 있었다. 생명의 다이몬이 주술사들의 무도와 비극을 통하여 수난과 부활의 극적인 표상을 거치며 관중들도 이 죽음과 부활의 순환과정에 동참하게 된다. 여기서 사람들은 제의를 통하여 세계생명에 참여하고 영혼의 안정을 얻게 된다. 피타고라스는 이러한 정관의 상태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는 이 열정적인 파토스적 정관을 이성적이고 냉정한 로고스적인 지혜의 추구(philosophia)의 정관으로 변환시켰다.<sup>10)</sup> 피타고라스 교도들은 디오니소스 대신 그들의 주신을 지성과 지혜의 신인 아폴론으로 삼았다. 이들은 영혼의 정화를 위하여 오르페우스교보다 더 엄밀한 수행을 요구하였다. 영혼의 정화가 지적 수양, 즉 기하학적 훈련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보았고, 이를 위해 금욕을 통한 절제와 음악교육이 시행되었다.<sup>11)</sup> 잘 알려진 그의 교설은 디카리아르코스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혼은 불사의 존재로서 다른 종류의 살아있는 존재로 변형되며 윤회한다. 둘째,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나, 어떤 원형의 순환과정 속에서 거듭 태어나므로 절대적으로 새롭지 않다. 셋째, 이 과정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모든 존재자들은 친족으로 취급되어야 한다.<sup>12)</sup>

슈타이너의 영혼관은 죽음과 출생 사이에 있는 정신영혼으로서 **정신인간**과 **생명정신**, **정신자**아가 인간에게서 의식**영혼**, 오성이나 감성**영혼**, 그리고 감각**영혼**으로 유출된다고 보았다. 여기에 정신으로부터 영혼에 그리고 육체로 이어지는 조화의 과정을 교육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의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영혼을 정관의 영역에 한정시켜 설명하기보다 육체적인 면까지 포괄한 플라톤 영혼관의 계층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한다. 이를 위하여 또한 호메로스의 영혼관을 살펴보는 것이 슈타이너의 영혼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호메로스에게 프쉬케는 ‘숨쉬다’를 뜻하는 프쉬코(psycho)에서 유래하듯이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단지 호흡을 담당하고, 다른 기관들은 다른 영혼들이 그 기능을 담당했다. 즉 누우스(nous)는 시각과 연계하여 논리를 담당하고, 튀모스(thymos)는 정신적 육체적 반응 능력과 연계하여 용기를 담당하고, 프레네스(phrenes)는 육체적인 힘을 담당하고, 카르디아(kardia)는 심장과 연계하여 감정을 책임졌다.<sup>13)</sup> 이러한 전통적인 영혼론을 종합해 볼 때 슈타이너의 영혼론은 불교의 윤회설이라기 보다는 희랍전통의 영혼론을 정신과 그 영향력인 영혼의 관계로 어머니의 신체에서 물려받은 정교

10) 콘포드 『종교에서 철학으로』, 남경희 옮김, 이화여대출판부, 1995, 238-239쪽 참조

11) 김윤동, 「플라톤에 있어서 영혼의 삼분」, 『서양 고·중세 철학과 그 유구한 문제들』 김완수 외, 철학과 현실사, 2002, 90쪽.

12) 콘포드, 앞의 책, 421쪽에서 재인용.

13) 레이먼드 마틴, 존 베러시, 『영혼과 자아의 성장과 몰락』, 마리 오 옮김, 영림키디널, 2008, 15-16: 누우스, 튀모스, 프레네스에 관한 상세한 연구는 장영란, 「고대 그리스 철학 이전의 영혼」, 『철학연구』 64집, 64-69쪽 참조.

한 신체 아스트랄체로부터, 에테르체, 조야한 신체로, 물체에서는 동물계로부터 식물계, 광물계로 종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또한 머리, 가슴, 지체로 연결되는 삼지성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분류에서 슈타이너는 영혼을 의식의 관점에서 파악한 근대 철학의 경향을 다시 고대 영혼론에 접목하려는 비의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영혼으로부터 육체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의식구조의 상관성을 체계화하려는 그의 의도는 복합 영혼론의 관점을 보여주는 듯하다.

## 2. 의지와 표상

인간 본성의 심리학적 그리고 인식론적 이해의 기반이 되는 표상과 의지는 슈타이너 인지학을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슈타이너는 표상을 수태이전에 우리가 체험한 모든 것에 대한 형상이라고 하였고, 의지를 사후에 우리 안에서 정신적 실체가 될 싹이라고 하였다.<sup>14)</sup> 여기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선형적 의식과 ‘표상’과 ‘의지’ 두 개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다. 이 개념은 본래 슈타이너가 극복하려 했던 칸트와 헤르바르트에게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의지와 표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헤르바르트와 쇼펜하우어에게서 이미 다루어졌다. 슈타이너가 칸트의 본성론과 헤르바르트의 교육관을 비판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간단히 그들의 입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지주의 교육체제를 발전시킨 헤르바르트는 교육학을 철학의 원리에서 다루었으며 1890년대에 현실주의적이고 실증적인 시대정신과 가까운 그의 교육학이 학교제도를 지배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교육 목적을 윤리학에서 이끌어 내었고, 방법을 표상심리학에서 이끌어 내었다. 우리의 경험 속에서 실제적인 것들은 그 자체로서 인식하기 어려우며 자기를 보존하는 방향과 서로 방해하는 표현으로 이해하였다. 이에 따르면 단순한 실재는 인간의 영적인 요소이다. 헤르바르트는 영적인 것이 방해에 대처하는 형식이 ‘표상’이고, 표상들이 끌어당기거나 대립하는 서로의 관계로부터 변화, 방향성, 융해, 결합, 재생산 (기억, 환타지)등이 생긴다고 하였다. 새로운 표상이 기존의 것을 통합하는 방식을 ‘지각’이라고 하는데 헤르바르트는 모든 표상들이 인간 내면의 깊은 곳으로부터 작용하여 도덕적 힘이 될 것을 요구하였다. 그는 표상이 의지로 되는 이러한 중요한 경향을 ‘흥미’라고 하였다. 헤르바르트에 있어서 의지는 궁극적으로 표상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표상영역, 즉 사고체계가 교육적 노력의 실제 중심이 된다.<sup>15)</sup>

칸트 철학의 해석자로서 쇼펜하우어에게 ‘의지’는 계획적인 의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14) 슈타이너 50, 52쪽 참조.

15) 알버트 레블레, 『서양교육사』, 정영근 외 옮김, 문음사, 2006, 299-301쪽 참조.

한 목표없는 늘 새로운 삶의 충동이라할 수 있다. 우리가 외부세계에서 탐색하는 것은 물자체가 아니라 맹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현상계 내부에만 적용될 수 있는 범주를 사용하여 인과적으로 물자체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쇼펜하우어에게 물자체는 무의식적 의지이다. 개체의지는 세계의지의 제약을 받고 있다고 보며 자연과 정신에 하나의 무의식적 창조력이 작용하고 있음을 간파하였다. 피히테나 셸링과는 달리 여기서의 의지는 맹목적이고, 비합리적인 세계의지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의지없는 순수한 의식자체에 도달할 수 있는가? 이 때 인간은 의지없는 순수한 인식주체가 될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예술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보았다. 쇼펜하우어에게 예술은 인과율이나 의지와 무관한 사물의 관찰이다. 자연과 예술은 무한한 세계의지의 두 가지 표현형식이다. 특별히 음악은 의지자체의, 세계본질의 직접적인 모상이다. 쇼펜하우어가 괴테와 깊은 친분이 있었고 직접 『시각과 색체에 관하여』라는 저작을 남겼으며, 사망한 다음해에 슈타이너가 태어난 것은 그의 사상이 어떤 철학적 조류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인지 잘 나타내고 있다.<sup>16)</sup>

슈타이너가 출생이전과 죽음이후의 정신적 실재를 무의식적인 반감과 공감 속에서 반영한다는 것은 그가 관념실재론에 있음을 나타낸다. 다만 그가 말한 대로 신지학의 입장을 수용하여 반감과 공감의 차원에서 기억과 환상이 생성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표상 갈등은 헤르바르트에게서 의식 안에서 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과는 달리 선험적인 세계 반영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우주가 인간의 의식활동을 발달시킨다는 것은 인간의 의식이 영혼의 백지상태이며 거기에 어떤 형식의 생명이나 표상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헤르바르트와는 달리 선험적 표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

슈타이너에게 표상과 의지 사이에서 의식활동의 주체가 되는 것은 감성이다. 그는 감성은 의지와 유사하며 의지가 실행된 감성이라면 아직 드러나지 않고 영혼 내부에 남겨진 의지가 감성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 생성 중인 완성되지 않은 의지이다. 슈타이너는 반복적 행위를 통하여 올바른 것에 대한 감성이 일깨워지고, 무의식적 반복은 감성을 육성하고 의식적 반복은 고유한 의지적 자극을 육성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점에서 예술적 요소가 의지육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sup>17)</sup> 슈타이너가 바라보는 의식 활동의 특징은 사고와 감성과 의지가 분리되어 활동하지 않고 함께 유기적으로 관여한다는 것이다. 즉 공감과 반감 간의 평형 속에서 객관적이고 균등한 시각행위가 생기듯이 감성 속에서 의지요소와 사고요소는 완전히 통합하여 존재한다. 감성행위의 어떠한 동참 없이는 어떤 판단이나 의지도 우리영혼에 의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판단의 확신에 감성이 작용하며, 의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았다.

16) H. J. 슈퇴리히, 『세계철학사』 下, 임석진 역, 분도출판사, 1976, 280쪽.

17) 슈타이너, 앞의 책, 111쪽.

이러한 통합적인 인간본성론은 상당히 시대를 앞선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활동을 도덕발달에 그대로 적용하여 도덕발달이 아동적인 본능 공감에 반감이 들어설 때 가능하다고 하였을 때 항상 금욕적인 것이 되며 동물적인 것을 극복하기위한 연습<sup>18)</sup>으로 단순화된다. 이것은 흄을 비롯한 계몽철학자들이 공감으로부터 도덕의식이 발생한다는 입장과 다르며, 칸트의 실천이성이 개인적 의지의 준칙을 보편적 입법의 원리에 따라서 행동해야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흄과 칸트에게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자율성이다. 자율성과 선천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도덕적 행위가 이루어진다. 슈타이너가 말하듯 도덕발달은 단순히 동물적인 것을 극복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회적 관계에서 일어나는 도덕활동은 금욕적인데 있다기보다는 상대가 자신과 같은 욕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데서 시작된다. 여기에서 사회적 공감이 형성되며 본능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바탕을 이루게 된다. 또한 공감한 내용에 대한 긍정성은 이성의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이 두 요소가 균형을 이루는데서 도덕적 행위가 가능하게 된다.

### III. 슈타이너의 교육 인성론

#### 1.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적 인식

사고와 감성과 의지는 인간본성의 세 요소이다. 슈타이너는 인간의 본성을 의식과 무의식의 관점에서 심리학적으로 다시 분석하고 있다. 사람이 사고하면서 인식할 때 형상적인 것이 의식적인 활동을 한다고 하였다. 형상은 상상이며 환상과 공감을 통하여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자아는 실재우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체가 생성한 우주형상 속에 살게 된다. 자아가 형상을 벗어나기 위해서 슈타이너는 『고차 세계의 인식으로 가는 길』에서 암시한 것과 같이 수련을 통하여 실재우주에 있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교육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추상화된 것보다는 형상화된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하였다. 형상화된 것은 추상화된 것과는 반대로 미래와 사후의 것을 암시하기 때문이다.<sup>19)</sup>

슈타이너는 감성을 꿈꾸는 의식으로 파악함으로써 무의식적 영감으로 고취된 예술적 삶의 근원으로 인식한다. 깨어있는 형상적 인식은 영감으로 고취된 감성으로, 다시 감성은 잠자는 직관하는 의지로 순환된다. 이 의식의 순환성은 사고와 감성과 의지가 밀접한 순차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순차성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감성과 이성의 관계는 순차성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회의를 갖게 되나 그 상관성은 인간 본성론의 지속적인 관심사로 떠오

18) 슈타이너, 앞의 책, 122쪽.

19) 슈타이너, 앞의 책, 144; 66쪽



르고 있음을 볼 때 높이 평가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이에 따라 슈타이너는 일반적으로 감각을 인식의 일부로 파악하는 관점에 이의를 제기한다. 감각한 다음에 지각하고, 표상해서 개념을 형성한다는 일반적인 인식과정이 감각이 가지고 있는 감성적 성향을 지닌 의지적 성질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감각은 사고하는 인식이 아니라 느끼는 의지 또는 의지적 감성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슈타이너는 감각과 감성이 유사하다는 모리츠 베네딕트의 심리학적 입장을 좇아 감각의 기능이 아니라 감각의 성향이 일어나는 계기를 주목하고 있다.<sup>20)</sup> 인간의 외적 표면에 감각의 영역을 지니며 거기에 의지적 감성, 감정적 의지가 존재한다고 본 것이다.

우리에게 관심을 끄는 것은 슈타이너가 감각과 감성과 감정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는 단순한 감각적 지각도 혼의 본성인 내면세계에 속해 있어서 혼적 내용에 속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감각적 지각에 혼의 내적 운동의 결과로 감정이 더해지면 제 2 세계를 만들어 낸다. 그리고 자신의 내적 본질을 외부세계에 새겨 넣는 의지가 작용한다. 인간의 혼은 그 의지 행위를 통하여 밖으로 흘러나간다.<sup>21)</sup> 슈타이너에게 감각은 단순히 인식의 자료를 제공하는 제한된 범주에 머무르지 않는다. 혼의 영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피히테의 말처럼 영적 감각이 시작된다. 감정을 감각의 내적 반응으로, 의지를 외적 반응으로 설명한다. 여기에 슈타이너의 독창적인 감각과 감정과 의지의 상호관계성이 나타나며 칸트의 인식과정으로서 감각의 제한된 인식기능을 극복하려는 관점이 나타나있다.

여기서 언급하고 지나가야 할 문제는 당대의 철학자로 철학적 인간학의 분과를 연 막스 셸러(Max Scheler, 1874-1928)가 인간 본성 가운데 감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의 본성론을 체계화시킨 것과 비교가 되는 점이다. 당시 감각과 감정에 대한 인간의 의식과 본성이해는 새로운 인간이해의 조류였으며 분석적인 인간이해로부터 통합적인 인간이해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알려주고 있다. 막스 셸러에 따르면 감정은 네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이 종류의 감정은 감성적 감정, 생명적 감정, 심적 감정, 정신적 감정이다. 이 감정들은 인간 심정에 공존하고 있으면서 때로는 어떤 감정이 다른 감정보다 더 지속적이거나, 더 강렬히 발하기도 한다. 이 네 종류의 감정은 질적 기능적 차이와 작용대상의 차이도 보인다. 따라서 서로 위계를 갖추고 있어서 감성적 감정보다는 생명적 감정이 더 고귀하고 더 지속적이고 의미의 통일성이 강하다. 또 생명적 감정보다는 심적 감정이, 그리고 심적 감정보다는 정신적 감정이 더 강하다.<sup>22)</sup>

슈타이너나 셸러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정신성이다. 특별히 슈타이너는 7년주기의 어린이의 기본적인 성향을 도덕과, 미와, 진리의 차원에서 시기적으로 구분하였는데 여기서 진리의 차

20) 슈타이너, 앞의 책, 159쪽

21) 슈타이너, 『신지학』, 양억관, 타키하시 이와오 옮김, 물병자리, 2001, 26-27쪽

22) 금교영, 「막스 셸러의 윤리학적 공감론」, 『철학논총』 16집, 1999, 6쪽

원은 쉘리의 정신적 감정과 깊은 연관성을 보인다. 이러한 본성이해의 경향은 슈타이너가 유럽의 합리적 전통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어린아이에게 오히려 세계는 믿음이 간다. 그리고 사회적이다. 따라서 도덕적이라고 하는 편이 낫다. 마찬가지로 세계는 좋다. 아름답다. 신비롭다고 하며, 따라서 세계는 알 수 있다. 법칙이 있다. 진리가 나타난다는 정도로 각기 고양되며 상호적인 유기성을 보이는 편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사람은 도덕적 단계에서 미적 단계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리의 단계로 체계적으로 성숙하지 않는다. 도덕적, 미적, 과학적 단계가 각기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또 아동의 성향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발육한다. 따라서 이러한 순차적 구조는 슈타이너의 유기적인 교육방법론과도 모순되는 점이 나타난다.

언어 발생기관의 운동기능을 몸 전체로 발전시킨 오이리트미는 유기적인 몸의 언어를 표출하고 있다. 슈타이너는 오이리트미는 언어이며 혼의 표현이라고 하였다.<sup>23)</sup> 그런데 여기서 연기를 위해서 제 3의 요소가 고려된다. 그것이 의지적 성격의 요소이다. 음성을 색채화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첫 번째 색채 표현에 있어서는 움직임이, 두 번째 색채표현에 있어서는 감정이, 세 번째 색채표현에 있어서는 성격이 사용된다.<sup>24)</sup> 그러데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철학적 근거는 프란츠 브렌타노(Franz Brentano, 1838-1917)에 두고 있다. 브렌타노는 동작이 인간의 내부를 고도로 열어보여 줄 수 있다는 입장에 있었다. 슈타이너는 손이나 팔의 몸짓이 온갖 증명이나 논증보다도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실러가 말하는 것처럼 언어에 구비되어있는 혼의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sup>25)</sup> 슈타이너는 오이리트미를 가장 완성된 인체조직을 사용하는 예술이라 하였다. 인체 조직이 우주의 모든 비밀과 법칙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우주로서 대우주를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이리트미는 단순한 모방이나 춤이 아니라 움직임이며 노래하는 것이다.<sup>26)</sup> 이러한 움직임은 중력을 극복하는 것이고 혼의 표현으로 지상적 인간에서 천상적 인간으로 나아가는 것이다.<sup>27)</sup> 그에게 춤은 독립된 리듬이고 태고의 세계로 올라가는 움직임이다. 그러므로 그는 본래 그리스 신전에서 행해졌던 춤의 본래의 형태로 돌아가야 한다고 보았다. 신전의 춤을 통해 우주의 가장 깊은 신비가 드러나기 때문이다.<sup>28)</sup> 여기서 우리는 슈타이너와 동시대를 살았고 춤에 대해서 유사한 관점을 갖고 있는 이사도라 던컨(Isadora Duncan, 1878-1927)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던컨은 예술의 자연성, 고대 그리스의 정신을 부활, 음악

23) 슈타이너, 『오이리트미 예술』, 김성숙 옮김, 물병자리, 2003, 31쪽

24) 앞의 책, 34쪽.

25) 앞의 책, 51-52쪽.

26) 앞의 책, 108-109쪽.

27) 앞의 책, 120쪽.

28) 앞의 책, 153쪽.

을 무용에 종속시키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고양된 내면을 표출하는 고대 그리스의 춤의 정신을 되살리고자 한 점에서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던컨은 내면을 표현하는 더 자유로운 원초적인 움직임을 지향하였지만 슈타이너의 오이리트미는 감정과 사고를 오가는 기하학적인 움직임을 바탕으로 통합된 의식의 발현과 외적 세계와 조화를 이루는 행위로서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의식과 행위의 지향성이 통일되어 나타나는 것을 추구하였다.

## 2. 슈타이너의 인성 발달론

인간의 감각은 발생과 성숙과정 가운데 자연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사람의 육체는 단순한 인과의 물리적 현상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고유한 원리에 따라서 자연과 함께 변화하고 있다. 자연 안에 다양한 존재들이 고유한 원리를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있다. 이 결합 속에서 고유한 본질과 본성이 나타난다. 인간은 자연과 사회의 결합 안에서 고유한 자유의 본성을 나타내고 있다. 슈타이너는 인간의 본성을 세 관점에서 발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첫 번째가 생명 육체(Lebensleib)로 인간의 자연적 본성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생존의 본능과 같은 특성으로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 나타나는 습관, 기억력, 버릇, 성격, 기질과 같은 것을 말한다. 두 번째는 영혼육체(Seelenleib)로 의식적으로 감성적 관점에서 고유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슈타이너는 영혼을 감성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비롯하는 영혼의 감응과 관련이 있다. 공감(Sympathie)과 반감(Antipathie)은 육체적 반응이 아니라 영혼의 반응인 것이다. 세 번째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성으로 개인으로 존재하게끔 하는 자아육체(egoleib)이다. 인간 본성이 자유를 갖게 하는 것이 이 영역이다. 예측할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은 고유한 미래와 자유체험을 가능하게 하여 고유한 삶을 이루게 한다.<sup>29)</sup>

이렇게 인간은 상이한 본성의 부분들이 결합하여 이루어졌으며 각각의 역할이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하는 가운데 개성이 나타나게 된다. 열린 자유로운 인간 형태는 자기 본연의 자아가 자기 본질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교육은 이러한 자아의 본질 형성을 돕는 것이다. 슈타이너의 자아에 기반한 자유이론은 현대적인 의미에서 자아형성의 조건인 다른 존재와의 구분을 가능케 하는 몸에서 비롯되는 개별성(individuation)과 본성을 묶어주는 정신의 단일성(unity)과 변화 가운데 일정함을 유지하는 영혼의 동일성(identity)으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슈타이너는 자아는 자신의 내부에서 나 자신의 자아를 지각하는 것은 타인을 자아로 지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하였다.<sup>30)</sup> 그런데 자아는 찰스 테일러가 말하듯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는 듯이 자아가

29) 볼프강 쾰스만스하우센, 「발도르프 유치원의 열린 그리고 자유로운 교육 방안」, 1997.5.16. 숙명여대 발표문 참조.

30) 슈타이너, 앞의 책, 179쪽.

있는 것이 아니다. 자아는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가지는 이해, 견해, 축적된 지식, 인식, 감정과의 관련을 통해서 구성되고 재형성 된다. 정체성과 자아의 조직 안에는 언제나 자기 해석이 들어 있다. 따라서 자아는 사적으로 창조되고 해석을 통해 정교하게 다듬어지며 개인 상호간에 구축된다.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형성될 뿐 아니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끌어와 자아를 구성하고 문화적 자원을 통해서 자아감각을 유지한다.<sup>31)</sup>

심리학자 알프레드 애들러는 초기 유년기 4-5년 사이에 형성되어 일생에 걸쳐 작용하는 개인의 행동과 정서적 반응을 라이프스타일이라 하였다.<sup>32)</sup> 아이들이 유년기에 올바른 자아형성을 갖추기 위하여 부모와 교육자는 생활문화의 이해와 반응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슈타이너도 유년기 초기에 자아가 형성된다는 같은 입장에서 있지만 내적 본성을 중시하여 전반적으로 안에서 바깥으로 형성되는 이론체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성의 성향에 따른 당위적인 교육 방법을 논의하게 된다. 여기서 다양한 문화적 조건과 삶의 정황을 고려하지 못한 점이 슈타이너 이론의 한계로 나타난다. 또한 자유는 자아형성의 조건으로서 다양한 삶의 조건에 반응할 수 있는 인간 본성의 바탕이 된다. 결과적으로 문화적인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보편적 교육체계는 슈타이너가 의도한 바는 아니나 그의 인지학적 논의에서 서구문화 중심의 인간본성의 이해를 근거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슈타이너는 삶의 초기 20년의 성향을 분석하고 이를 세부분으로 나누어 교육 체계를 세웠다. 젖니를 갈기까지의 첫 단계에서 아이는 주변의 모든 것을 모방(Vorbild und Nachahmung)하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이 관계는 그러나 모방되어야만 하는 규범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유대(innere Band)를 말한다. 어린이의 모방 능력은 어린이의 내면에 있는 자유의 표현이며 이는 어린이가 자신의 주변 인물들 속에서 비교될 수 있는 것을 인지한 경우에만 개발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다음 단계에서 사춘기까지는 알고 느끼고 원하는 것을 권위에 따르면서 수용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그리고 사춘기 이후에 비로소 자기 판단에 따라 주변환경과 관계하려는 열망이 생긴다고 하였다. 7년 주기의 구분은 서구의 다른 이론과 비교하지 않고 동양의 고대 교육지침과 비교해보더라도 인성 발달의 단계를 단순히 구조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생애 20년까지의 주기를 나눈 점에서 두 이론을 비교해 볼 만한 관점을 보인다.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동양의 인성발달의 원리에 바탕을 둔 체계적 교육지침은 『禮記』 「內則」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구체적인 교육 내용이 남성중심의 교육으로 편중된 점이 있지만 인성발달 단계를 체계적으로 언급한 점을 고려한다면 고대 유가의 교육 원리를 인지발달과 관련된 현대적 의미에서 응

31) 앤서니 얼리엇, 『자아란 무엇인가』, 김정훈 옮김, 삼인, 2007, 13, 15쪽 참조.

32) 앞의 책, 17쪽.

용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점에서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언급된 내용 가운데 인성교육과 관련된 출생에서부터 20세 이전까지의 교육지침<sup>33)</sup>은 우선 크게 네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단계(1세부터 5세까지)는 의식을 깨우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인간의 독립적인 생존은 도구의 올바른 사용으로부터 시작된다. 사람은 도구를 사용하는 존재임을 자각하게 한다. 오른손으로 식사하도록 가르침은 도구 사용의 절도를 가르치고자 함이다. 부름에 응답하는 것은 대화의 시작이자 지적인 반응의 시작이다. 허리띠의 구분은 분별의 시작이다. 동류를 구분하는 첫걸음인 셈이다. 육체적 성장과 지적성장이 급속한 이 시기를 의식의 개화기라 할 수 있다.

둘째 단계(6세부터 9세까지)는 의식의 성장 단계라 할 수 있다. 셈과 방위의 학습이 시작된다. 논리적 사유와 추상성에 대한 학습이 시작된다. 남녀 성 차의 분별을 통하여 이성에 대한 분별력을 갖추게 한다. 즉 단순한 육체적 성장이 아니라 성의 육체적 그리고 정서적 정체성을 찾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어른에 대한 사양지심과 시간의 흐름을 자각함으로써 자기가 어느 곳에 있는지, 누구와 함께 하는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자기가 누구인지를 의식하게 되는 도덕의식이 열리는 자의식의 발달시기라 할 수 있다.

셋째 단계(10세부터 14세까지)는 지적성장의 단계라 할 수 있다. 취학하여 배우고 배운 것을 익히고 수행하는 시기이다. 감수성이 발달하는 이때 비로소 시, 예, 악의 공부가 시작된다. 어린이로서 갖추어야 할 간결한 예절과 신실하게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법을 배운다. 음악과 시와 춤을 통하여 감정과 지식과 몸이 균형있게 성장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며 도덕의식을 배양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넷째 단계(15세부터 19세까지)는 지식을 갖추고 육체적 성장을 완성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무상(舞象)을 추고 서어(射御)를 통해 육체적 성숙을 발산하고 단련하며 이 과정에서 사회의 일원임을 자각하게 하고 공동체를 보호할 사회적 책임의식을 고양시킨다. 인격의 틀을 완성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이런 연후에 비로소 스무 살이 되어 성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때부터 五禮(凶禮, 吉禮, 賓禮, 軍禮, 家禮)를 배우고 문무를 겸비한 춤, 대하(大夏)를 추고 효제(孝悌)하고 박학(博學)하게 학문을 하여 내실을 기하게 되는 것이다.<sup>34)</sup>

내척의 인성발달단계를 잘 음미해보면 이는 오랜 경험을 통해 인식된 인지과정을 전제로 한 체계적인 교육적 지침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신체의 성장, 인지발달, 도덕적 인성을 어떻게

33) 『禮記』 「內則」 子能食食, 教以右手. 能言, 男唯女俞. 男鰲革, 女鰲絲. 六年, 教之數與方名. 七年, 男女不同席, 不共食. 八年, 出入門戶, 及即席飲食, 必後長者, 始教之讓. 九年, 教之數日. 十年, 出就外傅, 居宿於外, 學書記. 衣不帛襦袴. 禮帥初, 朝夕學幼儀, 請肄簡諒. 十有三年, 學樂, 誦詩, 舞勺. 成童, 舞象, 學射御. 二十而冠, 始學禮, 可以衣裘帛, 舞大夏, 惇行孝弟, 博學不教, 內而不出.

34) 이향만, 「유교적 인성교육과 사회윤리」 『유교문화연구』 제 2집, 2001, 174-175.

균형 있게 발달시킬 수 있는가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 이 고대의 교육원리는 전인적인 인간교육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현대에도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고대 교육원리는 또한 인지 발달에 대한 서구의 교육원리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IV. 나가는 글: 슈타이너 교육의 현대적 의미와 한계

슈타이너의 인지학적 교육론을 처음 대할 때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이론 체계로 다가온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다시 학술적으로 검토해보면 실증되지 않은 가설을 전제로 논지를 전개한 부분이 적지 않다. 특별히 인간 본성에 관한 내용은 현대 뇌과학의 실증적인 연구와 이론적으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으로 이러한 연구 성과를 접하였다면 슈타이너가 어떤 태도를 보일 지 궁금하다. 이러한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까닭은 이론체계의 논거와 거기에 근거한 교육적 실행방법의 효용성과의 간극에서 나타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슈타이너의 본성론은 독자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고 전체적으로 시스템화되어 있다. 이를 대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인간 본성을 그렇게 단순히 체계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가 든다. 두 번째는 그가 사용하는 용어들의 상관성을 알지 못하는 독자와 교육자로 하여금 의미 혼돈에 빠지게 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한정된 의미의 철학적 개념을 사용하기보다 개념의 의미를 확충해서 사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인지학 개념에 대한 개념사적인 지식이 없는 독자는 비판적 의식을 상실하고 이해하기에 급급한 이론체계로 다가오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타이너 이론을 선호하게 되는 것은 우선 교육적 효용과 효율성에 대한 결과 때문이다. 결과가 좋으면 원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범하게 되는 오류 가운데 하나이다. 이점이 슈타이너의 비판적 수용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다.

슈타이너가 인간 본성을 상관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 그에 따라 교육체계를 세운 것은 높이 평가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근대 인간 본성론이 그렇듯 슈타이너의 교육이론은 사변적인 이론체계라서 실증하기 어렵다. 인간 신체를 광물적, 식물적, 동물적 체계로 구분하고 해부학적 그리고 생물학적인 근거로 논거를 대고 있으나 현대 의학, 생물학, 인지과학과 뇌과학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새롭게 근거 지워야 할 내용이 대부분이다. 오히려 현대의 실증적인 논거들이 우리에게 슈타이너 이론의 새로운 해석가능성들을 열어준다. 또 다른 한계는 앞에서 간단히 언급한 바가 있지만 교육의 보편주의적인 관점이다. 교육은 아이들의 성향과 능력 그리고 다양한 성장배경과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 슈타이너의 교육론에는 그러한 점이 전혀 고려되어있지 않다. 아이들의 성장과정은 상당히 유연하다. 본성의 발달과정에서 자아가 형성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치를 감소시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고유한 인

격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다. 이러한 보편주의에 슈타이너 교육이 확일적으로 호를 수 있는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문화적 관점을 고려하지 않는 점이다. 슈타이너의 혼합주의적인 이론체계는 내심 모든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보편 교육론의 자부심을 갖게 하는지 모른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은 유럽중심의 인종주의적인 쟁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실로 흑인을 비하한 그의 언급의 배경이 그의 보편주의적 관점이 확일주의로 흐른 데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게 한다. 더욱 동양에서 슈타이너의 이론을 수용하는 가운데 이러한 점을 깊이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는 동양문화가 아니라 고대 그리스 인간관과 세계관에 기반하여 이론체계를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간과할 수 없는 슈타이너의 인지학이 갖는 교육철학적 의미는 무엇보다 인간 본성의 통합적인 이해이다. 인간의 본성인 감정과 이성과 의지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이 당대의 새로운 사유의 조류이기도 하였으나 슈타이너는 통합 이론 체계에 기반하여 교육론을 완성하였으며 발도르프 학교를 통해 교육 효과를 실증하였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감각의 분석이다. 12감각의 분석은 감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동양에서는 중세에 사단 칠정의 11가지의 도덕적 감성에 대해서 이미 깊이 있게 철학적 논의를 진행한 바가 있다. 의지, 감정, 인식에 따른 감각의 분류는 인식의 직관성을 상당히 주목한 이론이다. 또한 완전한 분석을 의미하지 않고 상호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이러한 이론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데카르트의 순수이성 활동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실증적 사례는 슈타이너 이론의 타당성을 뒷받침해준다.

세 번째 이러한 인간 본성의 통합적 이해는 영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길을 열어준다. 슈타이너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고양된 의식은 현대적인 개념으로 영성의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영성은 현상을 개념으로 환언할 수 있는 인식의 차원이 아니라 언어를 넘어서 인간의 내면적인 삶을 유지하게 하는 본성이다. 이성의 차원에서 볼 때 영성은 추론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타당한 진리를 인식하는 것과는 달리 직관적 파악 능력을 의미한다. 감정의 경우에도 순수한 사고와 마찬가지로 순수한 느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상호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단순히 감정시스템이 나머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그 후 혼자 작동하는 식이 아니라 감각기관들과 더 수준 높은 지적 기능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의식은 고도의 복잡한 상호작용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전체를 이룬다. 의지의 관점에서 책임을 묻기 이전에 의식적인 자유 안에서 행하는 선한 행동이 가능하다. 조건 없는 사랑은 인과성을 벗어난 인간의 선한 자유의지에서 비롯된다. 이것은 감성적 직관과 밀접히 결합되어 있다. 이러한 영성의 상호성은 슈타이너 복합감각론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고 할 수 있다.

네 번째 생태적인 관점에서 슈타이너 인간학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슈타이너의 교육론은 우주와 깊은 유기적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심층생태학적인 관점을 보인다. 슈타이너가 당대에 생태위기를 경험하지 않았으나 그의 이론 체계를 볼 때 슈타이너가 현실을 경험한다면 충분히 현재의 이러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촉구할 것이며, 생태교육적인 방법론으로 개발하였을 것이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을 때 슈타이너가 추구하는 자연친화적인 교육이 제대로 수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감각이론을 중시한 만큼 몸을 통해 소통하는 자연을 중시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육의 장으로 불러들인 자연의 부분은 자연으로 향하는 출구이다. 파괴되고 왜곡된 자연이 교육의 장에서 배제될 수 없으며 필연적으로 다루어 질 것이다.

다섯 번째 대안교육으로서 새로운 인성교육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슈타이너가 아동을 단지 미숙한 존재로 보지 않고 완전한 한 인간의 모습으로 파악하고 교육자와 상호간의 인격적 교류를 통하여 서로 소통하고 인격을 함양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인도주의 관점에서 교육이상을 실천했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언어를 중시하고 언어에 나타난 세계관을 주목하여 장차 스스로 세계로부터 받은 인상을 표현하여 세계와 조화를 이루어 나가게 한 점은 슈타이너의 교육관을 현대적 관점에서 다시 평가하고 재구성해야 할 의무를 갖게 하는 부분이다.

여섯 번째 예술적 교육론이다. 슈타이너의 색채론과 오이리트미와 조형예술은 시각 공간과 시간의 영역에 예술적 표현이 갖는 전인적 의미를 잘 말해주고 있다. 슈타이너는 교육이 예술로 시작해서 예술로 끝나야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는 플로티누스로부터 시작된 예술적 인간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술은 단지 미적 감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게 하며 생의 의미를 고양시킨다. 그러므로 자유와 개성이 발현되는 궁극처이다.

슈타이너의 교육론은 교육개혁의 과제를 갖고 있는 우리 교육현실에 자극이 되기에 충분하다. 슈타이너 교육론을 이해하기에 앞서 우리에게 교육론의 문화적 배경과 한계를 인식할 수 있는 비판능력이 필요하며, 우리의 전통적인 교육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내는 관심과 해석능력도 요구된다. 교육은 현실에 대한 진지한 이해와 이론에 대한 비판적 해석능력을 토대로 교사와 아동사이에 고유한 이론체계가 설정되고 시행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슈타이너의 이론 가운데 어떤 부분을 현재화할 것인가는 늘 비판적 인식을 필요로 한다. 교육은 또한 문화적 정체성을 찾고 자아를 완성하게 하는 일이므로 문화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과제로 다가온다. 생활문화, 언어문화, 자연문화 모두가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해석을 기다리고 있는 교육 환경이다. 이점에서 슈타이너의 이론체계가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론을 선별적으로 응용할 것인가가 당면한 과제로 남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윤동(2002). “플라톤에 있어서 영혼의 삼분”, 『서양 고·중세 철학과 그 유구한 문제들』 김완수 외, 철학과 현실사.
- 레이먼드 마틴, 존 베러시(2008). 『영혼과 자아의 성장과 몰락』. 마리 오 옮김. 영림카디널.
- 루돌프 슈타이너(2007). 『인간에 대한 보편적인 앎』. 최혜경 옮김. 밝은누리.
- 먼젤로(2009). 『진기한나라 중국』. 이향만 외 역. 나남.
- 슈타이너(2003). 『오이리트미 예술』. 김성숙 옮김. 물병자리.
- 슈타이너(2001). 『신지학』. 양역관, 타키하시 이와오 옮김. 물병자리.
- 레블레(2006). 『서양교육사』. 정영근 외 옮김. 문음사.
- 얼리엇(2007). 『자아란 무엇인가』. 김정훈 옮김. 삼인.
- 콘포드(1995). 『종교에서 철학으로』, 남경희 옮김. 이화여대출판부.
- 슈타이너(1976). 『세계철학사下』. 임석진 역. 분도출판사.
- 썬스만스하우센(1997). “발도르프 유치원의 열린 그리고 자유로운 교육 방안”. 숙명여대발표문.
- 이향만2001., “유교적 인성교육과 사회윤리” 『유교문화연구』 제 2집.
- <http://persival.egloos.com/1874262>(2012.05.10)
- <http://www.badische-zeitung.de/kultur-sonstige/ein-engel-der-versucht-mensch-zu-sein-50647248.html>(2012.05.10)
- <http://www.ruhrbarone.de/hitler-steiner-mussolini-anthroposophie-und-faschismus-gestern-und-heute/>(2012.05.10)
- <http://www.schiebener.net/wordpress/?p=14183>(2012.05.10)
- <http://www.spektrum.de/artikel/1120794&z=798888>(2012.05.10)

□ 이향만: 성균관대학교 한국철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고,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비교언어철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이다. hyangmann@hanmail.net

## Abstract

### The Education-philosophical meaning and limits of Rudolf Steiner's Anthroposophy

Lee, Hyangman(Sogang University)

Steiner's anthroposophy impart in aspect of philosophy of education a new meaning to the unified understanding of human nature. To integrated emotion and reason, and a willingness into human nature is his point. Steiner Waldorf school was completed through a system based on a unified theory. Theories demonstrate the effect of education. However, For properly understanding of Steiner's educational perspective, educator need the criticism and ability to understand cultural background and limits of Steiner's theory. Also our interest and interpretation of traditional education are required to find clues to solve the educational problems. In this point Steiner's theory is worth to be investigated.

**Keywords:** anthroposophy, education, human nature, emotions, feelings, commitment, representation, eurythmy